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교회의 간절한 기도

성경: 사도행전 12장 1-10절

Tag: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음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헤롯대왕의 손자 헤롯(아그립바1세 재위A.D 41-44.(37~41;갈릴리, 갈릴리 재위 기간 중 칼리굴라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의 정권장악에 도움을 줌.)) 로마황실에서 자람(헤롯 대왕이

정신이상, 세자를 죽임. 세자의 아들이 아그립바. 대신들이 그를 로마로 망명 보냄-교육 신변안전. 그곳에서 황제의 아들들과 교제함. 클라우디우스와 친함.) (큰 키 외모 준수, 목소리 웅장함. 아들 아그립바2세, (아그립바 2세의 여동생 드루실라-그녀는 벨릭스 총독과 재혼 아그립바를 낳음-폼페이에서 함께 죽음)

-친유대교 정치. 칼리굴라 재위 당시 예루살렘에 칼리굴라 황제상을 철수시킴.(유대인들 환호함.-당연히 반 기독교적)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요한의 형제)를 죽이고 베드로를 하옥시킴.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음(우리의 아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

-반면 베드로는 단순, 충성스러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옘바, 가이사랴(고넬료)를 중심으로 포교활동.

-헤롯과 유대인 지도자들(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중심, 그들의 사주를 받은 군인들-로마 군인들 아님.)

-베드로의 2차 투옥(행5장);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오니 교세가 커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베드로를 잡아 가둠. 그러나 천사가 와서 꺼내 줌. 병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됨.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두려워 함. 공회를 모으고 베드로를 힐문함.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려 함. 당국자들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함. 그러나 구실이 없음. 가말리엘의 임기응변으로 풀려남.

-베드로의 3차 투옥;아그립바의 인기 정책으로 인해서.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함.

-왜냐면 벌써 야고보도 죽임을 당한 처지였으므로 교회로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함.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함.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줌.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

-당시에 병사들에게 베드로를 지키라 함. 4명 씩 4팀에게 맡김.

-두명은 차고를 같이 차고 있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음.

-베드로는 탈옥의 명수로 알려졌기에 철저한 감시를 붙였을 것임.

-그러나 이때도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움.

-깊이 잠들었는지 일어나지 않자 옆구리를 쳐서 깨움.

-베드로는 전혀 탈옥에 대한 계획이 없었음.

(신발도 겹옷도 잘 개켜 놓고 잘 자고 있었음) 차고가 풀리고 옥문도 저절로 열림.

-천사들은 세속적 지배를 초월한 존재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과 들임을 알 수 있음. 세속 정치인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자들임. 상관 없이 일하심. 천사들은 그들의 통치를 따르지 않음.

-베드로는 탈옥하고, 잠적하게 됨.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둘 수 없게 됨.(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음) 다만 이후로 베드로는 드러내 놓고 포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임.

-아그립바는 예루살렘에서의 통치가 시들해지자 급히 가이사랴로 내려감.

-아마도 그곳에 있는 극장에서 일종의 로마 승전 대회가 열리게 되어서 그 지역 시돈 사람들이 알현을 요청함. 그들과의 회합도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연설하였다.

-연설을 들은 군중들은 환호하며 그를 신이라고 소리 질렀다.

##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그립바는 군중들의 소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유대인 행세를 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야고보를 죽인 별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된다.

-곁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쳤고, 그는 5일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뇌수막염?) 진시황도 그렇게 죽임당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된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김정은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경제는 파탄이 났는데 여전히 교회 핍박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여전히 격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는 동부구치소까지 코로나로 덮이고 말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확진자 수로 정치를 연명하고 있다.(이미 전국 전파 끝났는데, 확진 판정과 거리두기가 무슨 소용인가? 유증상자 선별 신속 치료가 답이다.)

-이제 더 이상 확진자 타령 하지 말고, 유증상자를 신속하게 돌보며,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 어르신들은 사망의 위험이 많으므로 치료를 지속하는 한편,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교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일인가?

-이번 기회에 교회는 거짓되고 세속되고 율법적인 모든 위선을 벗고 참된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도록 회개하고 일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서야 할 것이다.

-교회건축과 총회장 늘음에 빠진 한국교회.(이거 하느라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고 있음.) 새시대, 새물결, 새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성경: 예레미야 5장 1-14절

Tag: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2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그러나 그 맹세는 거짓맹세.  
그렇게 말하면 만사형통 주문 썸으로 여김. (믿음 있어 보이고, 하나님  
이 그 사람에게 뭔가 면허증이라도 준 것 같은 느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언제나 거짓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3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  
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혹 자기는 잘못했을 지라도, 같은 진영 사람들에게 팽 당할 까봐  
같은 변명을 늘어 놓는다. 자기 진영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그를 비판  
하지 않는다.

-남 탓 한다.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악한 짓 보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악하다.

-회개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

4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와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고, 예언자가 있는데도 예언  
자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데도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찾  
지 않고, 자신의 악행조차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리석다.

5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멩을 꺾고 결박  
을 끊은지라

-겉으로는 하나님 우선, 속 마음으로는 자기 우선.

6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엇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  
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7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  
기의 집에 허다히 모임며

8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  
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10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  
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와 것이 아님이니라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1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재앙을 보고도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3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의 말을 공허한 바람과 같다고 하며, 그들의 말을 바람처럼 여긴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

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렘5:1-14)

-네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이 불이 되게 함. 너에게 화가 되게 함.

-네 입술의 언어유희.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유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했으니, 그 말이 너희에게 불이 되게 하겠다.